

지지부진 흑산공항 내달 전환점 맞을까

국립공무원 민간위원 절반 교체... 지자체·환경단체 촉각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환경부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된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다음 달 중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흑산공항 사업을 심의하는 국립공무원위원회 민간위원의 절반가량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항건설에 반대했던 민간위원들이 대거 바뀌었다면 흑산공항 건설사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유임되거나 공항 건설 반대론자들이 선임될 경우 현재와 같은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환경부-전남도-신안군 등에 따르면 오는 4월 환경부 국립공무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15명 중 8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위원회는 정부 소속 당연직 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5명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민간위원 일부가 임기 2년을 채워 이들의 유임 또는 교체 여부가 곧 결정된다.

이에 따라 공항건설 여부에 관심이 큰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은 이들 민간위원의 교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항건설 찬성 측은 지난해 흑산공항 건설을 놓고 벌여졌던 찬반 논란을 끝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를 이 국립공무원위원회의 민간위원들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건설에 부정적인 환경보호론자들이 민간위원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흑산공항이 환경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공항건설 찬성 측은 교체 대상 민간위원 8명이 좀 더 중립적이거나 공항건

설 찬성 쪽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공항건설에 우호적이거나 최대한 중립적인 인사들로 바뀔 수 있도록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기 2년을 채웠더라도 2년 더 유임이 가능하고, 위원이 교체되더라도 공항건설에 찬성하는 인사로 채워진다는 보장도 없어 이 같은 기대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공항건설 반대 측은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는 만큼 민간위원 교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남지역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민간위원이 누구로 바뀌더라도 국립공무원위원회가 환경보호라는 대명제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위원회가 그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공항건설 관련 서류를 보완

해 다시 제출하기로 한 서울지방항공청도 이 때문에 보완서류를 선불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공무원위원회의 제반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다시 공항건설 심의를 요구했다가 거부될 경우 사업은 사실상 물건너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공청 입장에서는 아직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다"며 "공항건설을 위한 제반 여건이 확실해져야만 항공청이 움직일 것이므로 국립공무원위원회 민간위원 유임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1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68만3000㎡ 부지에 1.2km 길이 활주로를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박정욱 기자 jwpark@연남뉴스

플라이강원 등 3개 항공사 국토부, 신규 면허 발급

에어필립·가디언즈 '고배'



김정은 위원장 평양 도착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공식방문을 마치고 5일 오전 전용열차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가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규 항공운송면허 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11월 신형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 자체 테스트포스(TF)와 한국교통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면허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강원도 양양공항을 모(母)기지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 중장거리 특화 항공사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다.

현재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에어필립은 자본잠식과 경영난으로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됐다.

화물운송사업 면허에 도전한 가디언즈는 사업계획에 운수권이 없거나 화물운송수요 등 구성성이 떨어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수주 내 평양에 협상팀 보내기를 희망"

北과 '대화 계속' 의지 피력... "이해관계 공유 부분 찾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향후 수주 내에 평양에 (협상)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오와 주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이오와 최대규모의 농장 연합인 '아이오와 팍 뷰로'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비록 아직 확약된 바는 없지만 나는 그것(협상)으로 돌아가기를, 향후 수주 내에 평양에 팀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관계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노력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안을 해왔다"면서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들은 핵무기 없이는 물락할 것이라는, 북한 정권이 물락할 것이라는, 그것이 그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역사적인 전략을 믿고 있다"면서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폭염, 전남 축제 시기도 바꿨다

녹동바다불꽃 축제·거금도 아름다운 밤 등 봄·가을로 조정

매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열렸던 전남 일부 지자체 축제에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라 개최 시기가 변경된다. 폭염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매년 8월에 열렸던 고흥 녹동바다불꽃 축제가 올해는 5월 중으로 개최 시기가 변경됐고, 거금도 아름다운 밤 행사 역시 7월에서 올해부터 10월 중으로 시기가 조정된다.

8월에 개최됐던 영광 천일염 젓갈 갯벌 축제도 올해부터 젓갈 수요가 많아지는 김장 시즌을 앞둔 10월로 개최 시기가 바뀌었다. 지난해 8월1일부터 열렸던 순천문화제 달빛야행은 올해 4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으로 시기를 변경했다.

강진군도 매년 7-8월 개최됐던 강진청자축제를 올해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로 축제 시기를 변경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여름 축제를 봄 또는 가을로 변경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면서 축제들이 흥행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폭염이 지속될 경우

축제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하는데다 폭염 사고 등의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지자체들이 잇따라 여름 축제 시기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열렸던 강진청자축제는 폭염 때문에 관람객이 21만명 수준에 그쳤다. 전년 32만명에 비해 11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강진청자축제는 열 지자제인장 흥 물축제와 겹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지만, 폭염 속에 관광객들이 물 축제로 몰리면서 축제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지난해 7월21일~8월1일까지 열렸던 고흥우주항공축제도 폭염 속에 치러지면서 관람객이 5만7000여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8만1000명에 비해 2만5000여명이 감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여름 사상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하면서 여름철 열린던 지역 축제들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서 "자치단체들도 지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 축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권일 기자 cki@

1인당 국민소득 12년만에 3만불 돌파

지난해 3만1천349달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올라서는 데 12년이 걸렸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 기준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7%로 속보치와 같았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명목 성장률은 20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며 체감 성장률은 낮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349달러로 전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달러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를 처음 돌파하고 12년 만에 3만달러 고지를 밟았다.

1인당 GNI는 국민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보통



한 나라의 국민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기준으로 인식돼오기도 했다.

한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까지 걸린 기간이 다른 국가보다 긴 편이다. 금융위기를 거친 탓이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과 호주는 각각 9년이 걸렸다.

/연합뉴스

임야

단독성/지분물건 환영
바로잡니다.010-6834-7400

투자 자문

엔피엘/급매물등 모든부동산
(주)오천/최선규.010-3605-5000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 식후 2개월까지 ~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OK!!!
▶ 2박스 구매하신 분께 한달분 더 드립니다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런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 ▶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 ▶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 ▶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KNSA
전화번호: 21719239

N.AVER 유엔바이오 케어생활건강 | 검색

010-3598-7080

웰다잉전문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3월 16일 개강 ●

2018. 2. 4일 부터 시행된 "사전명의로의향서의 홍보, 상담, 등록 등 인식교육을 담당할 "웰다잉전문 상담사 및 강사과정 모집!!

- 모집기간 2019년 2월 11일(월) ~ 3월 12일(화) 선착순 00명
- 교육기간 2019년 3월 16일(토) ~ 3주(토) 총 30시간
- 수강료 25만원, 자격증비 5만원, 교재비 1만원
- 계좌번호 광주은행 1107-020-709185 대한웰다잉협회 광주광역시부
- 교육장소 KT빌딩 6층(전남여고 옆), (주)리치월드예셋 강의실
- 상담전화 ☎ 062)511-0030, 010-5522-9700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명의로의향서 등록기관

대한웰다잉협회 광주지부

- ★ 본 지부에서는 "사전명의로의향서"에 대한 홍보, 상담, 등록 등의 업무를 무료로 봉사 하고 있습니다.
- ★ 기관, 단체의 요청 시 전문강사, 전문상담사를 파견합니다.
- 문의전화: ☎ 062)511-0030 · 팩스: 062)512-8767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